農業 및 農村發展을 위한 開發途上國間의 國際協力强化*

金 東 熙
檀國大學校敎授, Ph.D.(農業經濟學)

Ⅰ. 머리말
Ⅱ. 開發途上國에 있어서의 經濟發展 및 農村開發에 대한 挑戰
Ⅲ. 開發途上國間의 農村開發을 위한 相互協力分野
Ⅳ. 맺는 말

Ⅰ. 머리말

世界人口의 2/3 이상은 굶주림과 가난으로 부터의 解放이 대다수 주민을 위한 제1의 當面目標가 되고 있는 低開發地域에서 살고 있다. 또 이러한 지역에 있어 가난한 人口의 대다수는 農村에 거주하고 있으며 農業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오늘날 世界人類는 이 地球上에서 굶주림과 가난을 몰아내기에 필요한 技術的, 財政的 手段을 歷史上 그 어느 때보다도 풍부히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국가와 빈곤한 국가 사이에 生活水準의 현격한 不均衡 상태는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南쪽의 開發途上國들의 일부 지역에서는 굶주림이 여전히 심각한 상태로 만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UNICEF가 추정한 바에 의하면 1978년 한 해에만 5세 미만의 어린이 1,200만 명이 굶주림으로 죽어갔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빈곤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는 西歐式의 產業化가 그 첩경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開發途上國들은 農村部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工業化와 都市開發에 우선적으로 힘을 써 왔다. 그 결과, 離農現象이 도처에서 두드러지게 진행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農村에서 都市部門으로의 資本移動이 뒤따르게 되었다. 이러한 離農을 통하여 농촌의 剩餘勞動力이 生產的인 새로운 產業에 의하여 원활히 흡수되는 한, 經濟開發의 初期段階에서 農業部門은 農產物市場 擴大, 製造된 農資材의 供給增加와 營農規模擴大가 가능해짐으로써 農業生產性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게

* 本稿는 韓國農村經濟硏究院과 아시아·아프리카 農村再建機構가 共同主催한 「開發途上國間의 農村開發協力 國際會議」(1983. 10. 12~20, 서울)에서 基調論文으로 발표된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among Developing Countries"를 筆者가 직접 번역한 것임.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상당수의 開發途上國들은 경제도약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말았다.

先進國과 開發途上國間의 政治的, 經濟的인 相互依存性이 더욱더 확대되어 감에 따라 南쪽의 개발도상국들의 農業開發의 과제는 互惠의 원칙에 입각한 國際的 經濟協力이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운영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다. 최근까지 國際經濟協力에 관련되는 문제들은 先進國과 開發途上國間의 南北問題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開發途上國間의 보다 밀접한 협력체제의 必要性은 정치면의 협력뿐만 아니라 經濟 및 農村開發에 있어서도 강조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南北關係의 본질과 農村開發과 관련된 세계경제의 실상을 좀더 명백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Ⅱ. 開發途上國에 있어서의 經濟發展 및 農村開發에 대한 挑戰

돌이켜보면 第2次 大戰 이후 1973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世界經濟는 成長率과 貿易去來의 伸張에 있어서 전례없는 황금기를 누려 왔다. 즉, 세계의 產業生產은 연평균 약 3.5%의 증가율을 보여 왔고, 貿易去來量 역시 연평균 약 8%씩 신장하였다. 그리고 世界產業生產高는 연 3% 가까이 성장을 보여 왔으며, 개발도상국도 이러한 제성과의 혜택을 맛보았던 것이다.

그들 개발도상국들의 國民所得은 연평균 5%씩, 1인당 國民所得은 2.5%의 成長率을 보였던바, 이는 19세기나 금세기 전반에 금일의 先進諸國들이 이룩한 성장률을 능가하는 것이다. 특히, 開途國의 工業生產은 이 기간 동안 연평균 약 7%의 성장을 보였지만, 食糧生產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人口와 所得效果로 인하여 3% 이상씩 증가한 食糧需要에 따르지 못하고 겨우 3% 미만의 증가율에 머물렀다.

이러한 食糧不足 현상은 제3세계 국가들에게 일련의 다른 문제들을 유발시키고 말았다. 이리하여 많은 開途國들은 경제개발의 初期段階에서 工業化를 촉진하고 동시에 심화하는 식량부족 사태에 대처해야 할 어려운 問題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1973년 에너지波動이 있기 전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처리함에 있어 國際經濟狀況이 開途國經濟에 비교적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1974년 이래, 世界經濟는 심각한 경기후퇴와 그에 따른 貿易去來의 침체를 겪게 되었다. 그 결과, 開途國經濟는 先進工業國들로부터 資本을 도입하고 그들 市場에 상품을 수출하는데 점점 거센 장벽에 부닥치게 되었다.

우리는 지금 先進國의 技術革新과 物質經濟의 변화가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것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반면에 開途國에 있어서는 일반대중의 期待와 慾望이 경제능력의 成長을 앞질러 가는 상반적인 狀況에 직면하고 있다. 오늘날 선진국들에 있어서는 世界經濟秩序를 변화시킬 必要性에 관한 명확한 理解와 行動意志가 결여된 것 같이 보인다. 대부분의 부유한 국가들은 전례없는 好況期에서조차도 그들이 공식적으로 약속한 최소한의 援助(즉, 국민소득의 0.7% 이상)을 제공하려 하지도 않았다.

北쪽의 先進國들은 이제까지 南쪽의 開途國들에 대하여 경제개발에 필요한 資本 및 技術情報 등을 제공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開途國으로부터 一次產品과 공업제품을 보다 많이 수입하도록 市場을 開放하는 데에는 계속 주저하여 왔다. 이러한 수입상품들이란 다름아닌

表 1 全開途國에 대한 資金流入純額,[1] 1970~90

단위 : 10億 달러 (경상가격)

區 分	1970	1980	1982	1990年 예측	
				低 位	高 位
公共移轉	1.2	12.1	13.6	28.3	32.7
民間直接投資	2.5	11.8	15.8	19.4	24.4
中期性, 長期性借款	9.1	57.3	81.0	99.2	151.1
合 計	12.8	81.2	110.4	146.9	208.2
合計(1980年價格)	32.7	81.2	102.5	82.1	116.3
輸出純額	−8.5	−59.1	−75.8	−61.3	−110.0
經常國際收支[2]	−10.9	−75.0	−109.2	−124.5	−182.7
公共開發援助純額[3]	4.1	22.8	25.8	53.6	65.7
外債殘高	63.7	445.2	597.6	1,287.0	1,450.0

1) 中共은 除外.
2) 公共移轉額 除外.
3) 讓與的 公共借款 및 公共移轉純額의 合計.
資料 : 世界銀行, *World Development Report*, 1982.

先進國들로부터 도입한 資本과 技術을 밑천으로 하여 생산해 낸 것들이다.

만약 開途國들이 借款을 도입하여 아무런 償還手段(外貨)를 창출할 수 없는 산업에만 투자하고 만다면, 이러한 開發借款은 借入國의 外債만 누증시키고 말 것이다. 〈表 1〉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開途國들이 지고 있는 外債의 총액은 1982년에 거의 6,0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1990년에는 그 액수가 倍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생각컨대, 開途國들은 先進國들과 貿易去來를 확대하여 나감으로써 外貨를 벌어들이지 않고서는 外債를 상환할 방도를 찾지 못할 것 같다. 사실 先進國 전체의 工產品輸入 가운데 低開發國들의 市場占有率은 여전히 낮으며, 1980년에는 13%에 불과하였다. 또한 先進國들의 工產品 총소비량에 대하여 開途國으로부터 수입한 工產品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 내외로 추정된다.

南쪽의 開途國들은 사실 여러 가지 方法으로 先進國經濟의 發展에 크나 큰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高價의 商品 및 資本의 수출시장을 확장시켜 주고 있으며, 先進國의 인플레抑制에 도움을 주는 低價의 工產品 및 값싼 一次產品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高度技術時代에 이르러서는 先進國들의 經濟的 繁榮이 開途國經濟에 크게 의존하지 않게끔 된 것 같다. 왜냐하면 化學技術과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같은 尖端技術이 발달함으로써 후진국들의 노동집약적인 產業들의 比較優位性을 감퇴시키고 종래 이들로부터 수입하던 것을 상당히 自體生產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先進國사람들은 先進國經濟에 유익한 것은 궁극적으로 開途國들에게도 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는 일종의 國際的 餘澤經濟哲學(trickle-down philosophy)을 편법으로 가질 수 있다. 또 일부 開途國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사고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 이들은 어느 정도의 餘澤經濟效果를 얻기를 바라면서 先進國들의 경제회복만을 기다려 보자는 態度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고는 단지 근거가 박약한 희망일 뿐이며, 만약 이러한 사고를 따른다고 하면 關聯國家들의 經濟政策과 企業活動을 그릇된 방향으로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近年에 와서 케네디 라운드, 東京라운드와 같은

世界貿易을 촉진시키고자 한 일련의 노력이 先進國 主導下에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도 多國間 무역협상 노력이 계속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開途國들의 利害에 관하여 差別的으로 대하려는 先進國들의 態度는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東京라운드에 있어서 先進國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는 품목에 대한 關稅引下率은 33%인데 비하여, 開途國들이 주로 관심을 가진 품목의 關稅引下率은 25%에 불과하였다. 더우기, 선진국가들이 開途國으로부터의 農產物과 工產品 輸入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형태로 規制措置가 확산되어 갈 추세에 있는바, 한 예로서 최근 多種類섬유협정下에 低開發國家로부터의 섬유류와 의류수입에 대하여 포괄적인 輸入쿼타 制度를 적용하고 있다.

北쪽의 선진국들의 言論이 低開發國家로부터 선진국시장으로 수출되는 農產物과 값싼 工產品의 흐름을 일종의 「범람상태」로 계속 보도하거나 開途國들의 新興產業들이 그들 產業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를 내린다면, 低開發國에 대하여 매우 不公平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선진국산업들이 開發途上國市場에 얼마나 큰 발판을 구축하고 있는지의 사실에 대하여는 눈을 감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 經濟는 開途國들이 상품을 輸出함으로써 더 많은 外貨를 벌도록 도와 주지 않는 한, 개도국들에 대한 그들의 輸出高를 증대하기란 기대하기 어려울것이다.

현재, 石油를 제외한 광산물과 農產物의 世界輸出量의 약 60%는 第三世界 國家들이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나라의 國民所得과 外貨稼得額은 一次產品의 交易條件과 輸出規模에 의하여 매우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다.

第三世界에 있어서 食品產業을 포함한 近代的 產業開發에 多國籍企業이 수행한 역할의 중요성은 자주 강조되어 왔다. 물론 이것은 部分的으로 사실이다. 그러나 多國籍企業들이 많은 分野에서 활약하고 있는 國家들의 경제는 이들 企業들이 어떠한 經營내지는 貿易政策을 쓰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汎世界的 繁榮을 위한 균형발전과 모든 국민들간의 世界的인 和合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第三世界가 이니시어티브를 갖고 제안한 새로운 國際經濟秩序의 배경을 좀더 明確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1979년 國際聯合食糧委員會의 보고서에 의하면, 第三世界에는 약 8억에 이르는 貧困人口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들의 대부분은 또 적절한 食糧供給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구상에서 飢餓를 하루 빨리 추방해야 한다는 문제는 世界經濟體制에 대한 하나의 挑戰으로 대두되고 있는바, 이를 위하여는 各國別 政策과 國際的 政策이 相互補完的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世界食糧生產이 적절하게 증가하지 않는 한, 1970년대 초반에 겪었던 食糧波動의 회오리는 다시 되풀이될 可能性이 있다. 만약 그러한 食糧危機가 다시 발생한다면 食糧을 수입하는 第三世界의 低所得層과 農村貧民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1970년대에 低所得 開途國의 1인당 穀物生產은 〈表 2〉에 나타나 있듯이 감소하였다. 〈表 2〉에 의하면, 1970년대 低所得 開途國의 1인당 穀物消費는 世界 평균의 약 60%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그 이후 별다른 改善을 보이지 않고 있다.

1970년대 초반의 食糧危機에 앞서서, 많은 開途國들은 工業化에만 주력함으로써 農業開發이 갖는 補完的 諸機能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 결

表 2 1인당 穀物消費量 및 生產量의 變化率 比較

단위 : kg, %

區 分	1인당 穀物 消費量			1인당 穀物生產量 年增加率, 1970~80
	1970~1973	1976~1979	年平均增加率	
全 世 界	342.8	362.1	0.9	0.5
開 途 國	229.7	239.9	0.7	0.4
低所得國	202.7	202.4	0.0	−0.3
사하라以南아프리카	151.9	141.3	−1.2	−1.1[1]
南 아시아	211.8	213.5	0.2	0.0
中位所得國	255.6	275.7	1.3	0.9
사하라以南아프리카	150.0	148.5	−0.2	na[2]
東 아시아	271.2	282.7	0.7	na
中南美	244.0	249.1	0.3	0.6
南歐, 北아프리카, 中東	441.0	495.8	2.0	na

1) 아프리카.
2) 求하지 못함.
資料 : FAO와 世界銀行의 *World Development Report*, 1981, 1982에서 인용.

과 상대적으로 農業部門을 경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세계 도처에서 農村發展이 아니라 農村經濟의 停滯를 초래한 주요 요인의 하나가 된 것이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經濟開發과 國民福祉向上을 위하여 農業의 역할과 農民의 적극적인 참여가 얼마만큼 중요한가에 관하여 開途國들의 정책결정자간에 충분한 인식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의 식량생산과 消費趨勢가 앞으로 지속된다면, 開途國의 食糧不足 상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穀物과 畜產物을 輸出할 수 있는 國家들은 주로 北美, 大洋洲, 아르헨티나, 브라질, 유럽共同體(EC) 等地에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食糧不足國家에서 食糧生產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가 강구되지 않는 한, 이러한 食糧輸出國에 대한 低開發國의 食糧依存度는 장차 증대하게 될 것이다.

低所得國들은 그들의 食糧生產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많은 外部援助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農業에 대한 공공개발원조 규모는 〈表 3〉에 나타나 있듯이, 겨우 100억 달러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형편이며, 그중 1/3정도가 最貧國들에 배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經濟 및 技術 원조액은 低所得國家에 있어서 食糧生產增大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규모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表 3 農業部門에 대한 公共援助(約定), 1978~80

단위 : 1979年價格, 100萬달러

項 目	1978	1979	1980
公共開發援助			
DAC[1]	3,633	4,304	3,773
多國間機關	2,761	2,503	2,969
OPEC	307	243	179
計	6,701	7,050	6,921
其他公式援助			
DAC[1]	403	329	222
多國間機關	3,275	2,319	2,621
OPEC	49	99	48
計	3,727	2,747	2,891
合 計	10,428	9,797	9,812

1)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f the OECD.
資料 : 世界銀行, *World Development Report*, 1982.

우리가 만약 開發의 第一目標를 한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諸生產資源과 人間의 潛在力을 활용함으로써 自己성취와 創造的인 협력체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인다면,[1] 가난한 農村

[1] 국제개발 문제에 관한 獨立委員會, *North—South: A Programme for Survival*, 1980.

人力과 農村女性人力도 개발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農業生産性과 農村福祉와 관련된 제반 農村制度와 下部構造를 개선 확충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일련의 조치가 지체없이 강구되어야 한다.

현재의 世界經濟秩序의 성격과 工業國들의 정책적 制約으로 말미암아, 開途國들은 經濟成長과 農村開發에 필요한 보다 現實的인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世界的인 問題의 제원인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互惠의 원칙을 지킨다는 자세로 第三世界의 나라들이 相互間에 보다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이러한 제반 노력이 성공할 수 있도록 北쪽의 先進國들도 道德的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지와 원조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Ⅲ. 開發途上國間의 農村開發을 위한 相互協力分野

農業 및 農村開發을 위하여 開途國 相互間에 經濟的, 技術的 協力을 할 수 있는 機會는 많이 있다. 국제적 共同努力이 成果를 올릴 수 있도록 모든 機會를 살리기 위하여는, 먼저 現代社會의 諸制度와 우리들의 心理에 基本的인 變化를 가져오도록 힘쓰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新國際經濟秩序는 그를 실현시키는 主體로서 새로운 哲學과 폭넓은 眼目을 갖춘 人間을 필요로 하며, 이들의 潛在能力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開發過程을 요구하고 있다. 開途國間의 새로운 經濟秩序도 이러한 原則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첫째, 開途國間의 貿易去來를 확장하고 국제시장에서 그들의 農產物交易條件을 개선하기 위하여 서로 긴밀히 協力하여야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開途國들은 個別商品市場의 전망에 대한 제반 情報를 서로 교환하고, 가능한 한 世界市場의 需給에 있어서 불균형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서로 협조하여 각국의 생산 및 무역정책을 통합, 조정하여야 한다.

둘째, 開途國들은 農業 및 農村開發計劃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관련된 공공기관들이 서로 활발히 교환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公共硏究機關들은 農業, 에너지, 土木工學, 農村工業, 여타의 下部構造 등에 관하여 農村開發에 적용될 수 있는 技術과 제반 資料를 교환하도록 권장되어야 한다.

세째, 開途國들은 灌漑 및 河川유역개발과 같은 2個國 이상이 관련된 地域的 農業資源開發事業, 이를테면 인도차이나의 메콩江 流域開發事業과 같은 大規模事業을 촉진시켜야 하며, 그러한 프로젝트의 財政的인 보조를 계획하고 조달함에 있어서도 함께 협력하여야 한다.

네째, 食糧確保를 위하여는 食糧非常事態에 대비한 共同穀物備蓄計劃이 모든 당사국들에 대하여 유익할 것이다. 1974년 世界食糧會議가 로마에서 개최된 이래, 食糧穀物備蓄을 위한 汎世界的 計劃案은 많은 會議를 가졌으나 아직껏 아무런 結論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汎世界的인 計劃 대신에 穀物備蓄을 위한 地域的 計劃이 보다 實現性이 있어 關係國間에 받아들여질 可能性이 클 것으로 보인다.

Ⅳ. 맺는 말

아시아, 아프리카의 開途國들은 날로 증가하는 不確實性과 科學과 技術의 급속한 발전 때문

에 그들의 經濟를 보다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問題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세계는 굶주림, 貧困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機會와 物質的 手段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國民과 國民간에, 國家와 國家간에 人類全體의 生活의 質을 향상시키기 위한 相互信賴와 協助精神이 결여되어 있다는 데에 있다.

맺는 말에 대신하여 빌리 브란트(前 西獨首相)의 *North-South*란 책 서두에 쓴 귀절을 인용코자 한다.

"貧國과 富國을 나누는 어렵고도 까다로운 주제들은 偏見이나 希望的인 思考에 의해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문제들은 世界의 위태로운 긴장상태를 克服하고 세계 모든 지역의 나라들, 아니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全人類를 위하여 意味있고 有益한 結果를 가져오겠다는 굳은 意志力에 의해서만 解決의 실마리가 풀리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제개발 문제를 위한 獨立委員會, *North—South: A Programme for Survival*, 1980.

ILO, *Employment, Trade and North—South Cooperation*, 1981.

FAO, *Declaration of Principles and Programme of Action*, WCARRD 보고, 1979.

世界銀行, *World Development Report*, 1981, 1982.

콜롬보計劃局, *Technical Cooperation under the Colombo Plan*. 1979.